

삼성전자 세계 최소형 초경량 휴대폰 개발
 LG전자 세계 첫 TFT LCD 첫 개발
 현대전자 펜티엄프로 CPU 2개, 멀티PC시판

세계 최소형 초경량 휴대폰 개발

삼성전자는 6일 세계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디지털휴대폰(CDMA) 가운데 가장 소형(130×51×25mm) 플립형휴대폰(모델명 SCH-200F)을 개발, 판매에 들어갔다.

34억원의 연구비와 40명의 인력을 투입해 만든 이 제품은 삼성이 독자개발한 초절전회로를 채용, 기존 제품보다 배터리 소모를 30% 이상 줄였고, 사용시간도 현 제품 가운데 가장 길며(통화대기 90시간), 연속통화(2백50분)가 가능하다고 삼성은 밝혔다.

세계 첫 TFT LCD 첫 개발

LG전자는 세계 처음으로 노트북 PC에 채용할 수 있는 14.1인치 크기의 TFT LCD를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LC전자가 개발한 제품은 최적의 콤팩트 설계 기법을 적용해 A4규격의 기존 노트북PC 크기에 변화를 주지 않고도 화면크기를 12.1인치에서 14.1인치로 확대한 획기적인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 제품은 7백68×1천24도트의 XGA급 해상도를 지니면서도 무게가 6백50g, 소비전력을 4W에 불과해 무게 6백g에 소비전력 3W의 기존 12.1인치 SVGA급 제품과 큰 차이가 없어 노트북PC의 특성인 휴대성도 만족시켰다.

펜티엄프로 CPU 2개, 멀티 PC 시판

현대전자는 31일 2개의 펜티엄프로 2백 MHz 중앙처리장치(CPU)를 장착한 서버용 멀티미디어 PC 「멀티캡타워 9610D」를 개발하고 11월말께 시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컴퓨터 박람회 「컴덱스쇼」에 출품될 이 제품은 여러개의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멀티태스킹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한개의 CPU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나머지 CPU가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현대측은 설명했다.

발특 9611

▶ 보도자료 접수 ◀

FAX(02)554-1532